

전남

나주 삼영동 '어처구니 없는 단수'

한 시공업체가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망가뜨려 나주시 삼영동 일대 200여가구 주민들이 3일째 수도물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수관 공사중 수도관 파손등 3일 연속 사고 "수자원공사 안일한 대처 한심" 주민들 반발

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밀어내는 바람에 사전 예고없이 4시간 이상 수도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14일에는 지하수도관 관망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도관을 뚫는 실수를 저질러 2차 수도물 공급이 2시간 넘도록 중단됐었다.

사과정에서의 실수로 예고없는 단수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K모(53·나주시 삼영동)씨는 "100여m의 짧은 구간에 대해 공사를 하면서 세번씩이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수도물 공급계약을 책임진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며 "지하에 매설된 관망로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범고 나주수돗물서비스센터장은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도물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했다"며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공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7월 나주시로부터 20년간 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나주시지역 전역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과정에 나주시공무원노조 등이 '수도물 인상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위탁운영에 반대해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한복 입고 차밭 따기 신나요" 15일 하얀 차밭이 활짝 핀 보성차밭에 체험나온 보성 회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차꽃 따기와 꽃차 시음하기, 다례시연 등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성군 제공)

"쌀 생산비 보장하고 매입량 늘려라"

순천대, '김치 아이디어 공모' 10명 수상

순천시 농민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농민회는 지난 14일 순천시청 앞에서 쌀 생산비 보장과 대북지원 재계 및 법적 화해구 순천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회는 "쌀 생산비 21만원을 보장하고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58만톤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순천시에 대해 농민 특별안정자금 2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농업 농촌발전지원예외 제정을 요구했다.



락 매입가 등을 논의했다. 순천농협 이강호 RPC상부는 "농민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벼 수매가를 결정하겠다"며 "수매가 결정 전 우선지급금 4만 5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ija@

(사) 한국김치협회가 주관한 '김치산업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서 순천대학교 재학생 10명이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우수상에 정보문(식품영양학과 2), 우수상에 강유리(식품공학과 3), 김시라(식품영양학과 2), 김태형(정보통신공학과 4), 장려상에 김광웅(정보통신공학과 4), 조은애(식품공학과 4), 특별상에 김은주(식품영양학과 2)와 3명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정보문 학생의 '견과류를 삼킨 양배추'는 견과류의 고소함과 양배추의 아삭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어린이 영양에 좋은 훌륭한 음식으로 평가받았다. 강유리 학생은 '김치의 숲 누름판과 세계화', 김시라 학생은 '김치 치즈', 김태형 학생은 '김치 소스'에 대한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박종철 한국김치협회 회장(순천대 한약자원학과 교수)은 "이번 김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의 김치산업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훌륭한 아이디어가 김치 세계화와 국내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ija@

"1600년전 왕인의 역사속으로~"

영암군, 11월말까지 유적지 체험 행사

영암군이 올 가을 주말을 즐기는 군민과 가을철 영암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고유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7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화향기 그윽한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1600년의 역사 맞이 왕인기행'이라는 테마여행이 펼쳐진다.

체험행사는 1600년전 백제의 우수한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해 아스카문화화를 꽃피우게 한 왕인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조망하는 풍물관 국, 당시 도일(渡日) 장면을 가무·악행으로 펼쳐는 초빙극 '왕인박사 일본가요!'와 매지 마술쇼, 백제의상채춤, 왕인화당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왕인박사 유적지를 찾았으면 방문객을 불러모으는 풍물관으로 서

막을 알리고, '왕인박사 일본가요!'에서는 당시 왕인박사의 도일 과정을 재현한 초빙극과 퍼레이드를 펼친다. 관광객이 직접 백제의 상을 착용하고 행렬에 참가할 수 있다. 왕인화당에서는 천자문 예절교육과 가훈 및 고사성어 써가기, 도전 천자문 250계단 오르기 등의 다양한 선비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한편 왕인 국화축제가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오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영암=이성희기자 ish@

광양 '동호안 오염' 용역 발표 지연

학회측 "사안 중대해 조사 철저...내달 초순 발표"

광양시 동호안 제방 붕괴 및 해양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한국지반공학회의 용역 결과 발표가 당초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지반공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양제철 인근 동호안제방의 붕괴와 함께 주변 인선이엔티어 소유 특정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등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반공학회가 지난

달부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용역에 나섰다. 영산강환경청과 광양시의 조율 속에 인선이엔티어와 광양제철 등 2개 기업으로부터 지난달 16일 용역을 의뢰 받은 지반공학회는 당초 오는 17일께 용역 중간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실제 중간발표는 빨라야 이달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반공학회는 "사안이 중대해 충실하게 준비하고 조사를 하느라 시

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중간발표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빨라야 이달 말 아니면 내달 초순께나 중간발표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동호안 제방에서는 지난 8월 22일 전체 7.6km의 제방 가운데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한 주변 200여m가 바다 쪽으로 4~5m씩 밀려나고 제방위도 물러난 곳에는 균열이 생겼으며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자 환경청과 검찰, 기업 등 관계기관들이 총동원돼 원인규명 및 수사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eung@

이웃 사랑 행복 나눔

지적장애우 목욕봉사·위문품 전달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함평경찰서



함평경찰서(서장 박찬홍)는 지난 11일 지적장애우 수용시설인 나산면 소재 '사랑의 집'을 방문해 목욕봉사와 청소, 위문품 전달 등 '111 사랑나눔 운동'을 펼쳤다. 함평서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11 운동'은 1 경찰관서가 1 복지시설을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해 서민생활 보호 대책과

사랑 나눔을 선도, 사회적인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황윤희기자hwang@

나주교회



나주교회(담임목사 최태훈)는 최근 1천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교회설립 101주년 기념예배에서 이광철 시장관한대행에게 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 있는 실로암안과 의료진(9명)을 초청,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안과진료와 수술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im Byeong-jun,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수원지구 대지' and '첨단지구 대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MSA,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properties like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and '약 2850㎡, 가격 협의결정'.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 Seon,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properties like '전남 북구 대평동 영락공원 부근' and '전남 담양군 대평동 임곡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erye Law Firm,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ed tables of real estate listing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